

Issue Report

2016. 05. 31

CONTENTS

< 요약 >

1. 연구개요
2.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3.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 사례분석
4.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박준섭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jacobp73@cni.re.kr
이종택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임연구원, lht@cni.re.kr
전지훈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원, basillica@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조사, 지역사회기반의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현황을 파악, 충남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활용가능한 지역활성화 정책들을 제언하는 데 있음

요 약

-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10년째 들어선 지금,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이는 사회적경제가 경제불황의 극복이나 고용문제해결과 같은 거시적인 시각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과 자조적 지역발전, 지역기반의 공공성 향상과 같은 미시적 시각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 중 지역사회문제해결과 필요서비스를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발전된 조직들이 많이 존재함. 본 연구에서는 창업배경 및 목적에 따른 분류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역)사회혁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 총 520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중 지역사회혁신형 313개(60.1%)으로 분류되었고, 이 조직들은 로컬푸드 115개(36.7%), 소셜벤처 59개(18.8%), 교육·육아 41개(13.1%)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음
 -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중 로컬푸드(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교육·육아(충남교육연구소), 지역공동체(바른생산자협동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실시함
-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 필요(need)가 사회적경제조직(connector)을 통해 자원(asset)으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자원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을 확인함
- 그러므로, 다양한 연결자(생협·자원봉사·지역순환만들기)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①지역경제순환의 정책목표 수립, ②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평가 도입, ③ 지역사회기반 연대조직의 설립 및 모델 개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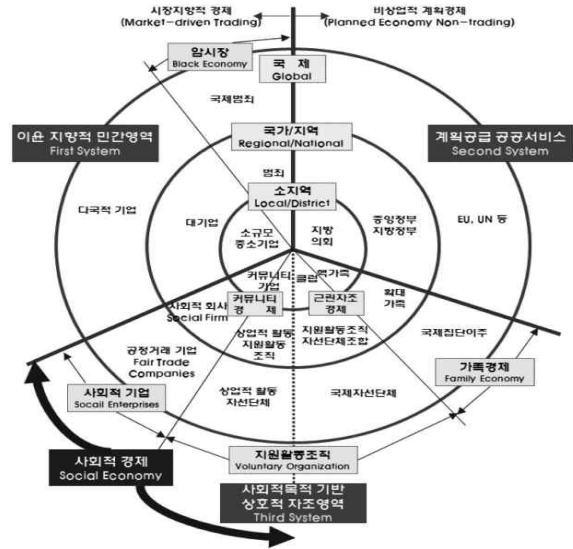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 사회적경제조직(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이하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작은 1997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촉발된 국가적인 위기에 있음
 - 이에 반해, 유럽의 경우, 지역과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장해온 전통적 사회적경제부문과 복지재정위기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발생한 새로운 사회적경제부문으로, 그 발생을 나눌 수 있음
-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 속에서 탄생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요청한 주요한 목적은 '일자리창출'에 있었음
 -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의 육성법(1997) 및 그 지원제도(인건비지원)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됨
- 그러나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째 들어선 지금, 지역사회 활성화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사회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가 없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필요성에 대한 의문제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쟁력확보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고민 등
-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의 발생 및 충남현황, 그리고 사례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실태를 조사하고, 특히 지역사회기반의 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이러한 현황파악을 통해 본 보고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활용할 가능한 지역활성화의 정책들을 제언하고자 함.

1. 사회적경제의 개념

- 사회적경제는 '호혜'와 '나눔'을 경제활동의 주요 원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 방식으로 20세기 저명한 경제학자인 Karl Polanyi의 이론을 근간으로 발전
 - 19세기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는 다른 경제원리, 즉 호혜성과 연대를 추구
 - 특히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가 노정한 문제점으로 경기침체 및 실업 등 삶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학자마다, 그리고 관점에 따라 다양함
 - 유럽공동체(1989): 사회적경제는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구성된 이해당사자 경제(Stakeholder Economy)의 일주로서 중요한 경제행위자인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을 포함
 - Defourny(1990): 사회적경제는 이윤창출보다 구성원이나 공공에 대한 공헌을 목적으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결정, 수익배분에서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이해당사자 경제의 일부를 말하는 것
 - 신명호(2009): 사회적경제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된 하나의 부문 즉,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의 집합

- 주성수(2010): 사회적경제는 영역으로는 국가의 공적영역이 아닌 사적영역이고, 시장의 영리영역이 아닌 비영리영역임. 활동과 조직으로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조직



<그림 1> pearce의 사회적경제 영역구분 및 조직분류
 자료: Pearce(2003), Brady(2003); 장원봉(2006:38)에서 재인용

- 위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김정섭의(2015)이 제시한 접근법은 사회적경제가 가진 다양함을 적절하게 정리하였음

<표 1> 사회적경제 접근 방법

접근방법	내용
법적·제도적 접근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의 중간영역
규범적 접근	규범적 지향성 기업목적: 이윤보다 구성원의 이해 이윤분배: 자본보다 사람 등
사회적경제 조절메커니즘 접근	시장과 공공부분, 비공식 부분간 자원과 원리를 매개(link)하는 시민사회의 공적영역

2.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1)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징

- 사회적경제가 대안경제로 주목받는 것은 경제불황의 극복이나 고용문제해결의 거시적 시각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과 자조적 지역발전, 지역기반의 공공성 향상과 같은 미시적 시각도 강조됨.
 - 정건화(2012)는 사회적경제가 개인의 자존, 자조 및 공동체복원과 지역채생에 기여하므로 대안적 경제모델로서 적극 고려되어야 할 원리로 강조함.
 - Defourney & Nyssens(2004)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자발적 조직에서 발전해왔고 사회적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소외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해왔음.
 - 또한 Lukkarinen(2005)은 사회적경제는 지역 수준에서 고용, 기업가정신, 사회적 포용, 지역발전 등에 큰 공헌을 하였고 시장과 정부영역이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수요 충족에 효과적임을 제시함.
 - 따라서 Fontan & Shargge(2000)은 현재 많은 정부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출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함.
 -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의 기여와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되는 대안경제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구체적인 원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사회적경제는 사업목적, 운영원리, 운영주체 등 몇가지 측면에 있어서 일반기업과 대비되는 특성이 존재

- i)사업목적: 이윤추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사회가치 추구
- ii)운영원리: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 및 연대 중시
- iii)운영주체: 유급노동자 중심의 일반기업과 달리 취약계층 및 활동가 중심
- iv)시장: 경쟁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윤리적 소비시장 중심

<표 2>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경제
사업 목적	이윤추구 극대화	사회적가치 추구
운영 원리	경쟁	협동 및 연대, 공유
주체	유급 노동자	유급노동자(취약계층 중심), 사회활동가 및 자원봉사자
시장	경쟁시장	윤리적 소비자 중심의 소비시장

- i) 사회적경제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업의 핵심 목적으로 추구
 -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윤추구를 위해 수익성 원리를 최우선시하는 것과 비교해,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대상의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의 경제재생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
 - 이러한 사회적가치 추구는 지역현안을 주민 주도로 해결, 정부 및 민간시장에서 충족시키지 못하는 육아, 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창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수익구조를 야기해 자립적 경영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표 3>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 실현 내용

구분	사회적 가치	관련 규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
사회적 협동조합	·지역사회재생,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기반 사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해당 분야가 주 사업의 40% 이상을 차지
마을기업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기업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3 이상 고용

- ii) 사회적경제는 경쟁을 기본원리로 운영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협동, 연대, 공유를 핵심 운영원리'로 추구
 - 사회적경제는 유사한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갖는 협동, 연대, 공유의 가치를 지향함
 - 이러한 특성을 통해 유사한 가치를 지닌 조직들과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호혜와 배려의 차원에서 거래하는 내부거래가 거래의 중요한 기반을 이룸
 - 이러한 내부거래 활동은 저조한 수익성 등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 요소 중 하나임
 -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경쟁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연대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

<연대와 협동의 가치에 기반한 내부거래 사례>

- 성미산 마을의 경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전속거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소비자가격보다 5~7% 인하)에 원재료를 공급 받고 있으며, 마포두레생협은 고정적 판매처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처를 확보
- 일본 타키마을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거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
 - 마을을 넘어서는 지역중소계약업체가 학교와 제품을 공동개발하고, 이를 위해 음식점이 공동출자, 판매, 상담 하는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 뿐 아니라 자치단체, 중소기업, 고등학교, 대학, NPO 등과 거래 및 연계를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

- iii) 사회적경제는 남성 중심의 일반기업과 다르게 '취약계층 및 여성 중심의 인력구조'를 지님
 - 사회적기업의 경우 취약계층이 전체 근로자의 약 59%(‘11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조건에 고용조건이 부가된데 주로 기인
 - 또한, 사회서비스 중심의 사업영역과 근로 여건 등으로 인해 여성 근로자가 65.4%(‘11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
 - 이는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반면,
 - 취약계층 중심의 인력구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 요소로도 작용하므로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

<표 4> 사회적기업 총근로자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2,539	8,506	11,150	13,443	15,990
성별	남성	711(28.0)	2,612(30.7)	3,668(32.9)	4,371(32.5)	5,497(34.4)
	여성	1,828(72.0)	5,894(69.3)	7,482(67.1)	9,072(67.5)	10,493(65.6)
연령	29세 이하	283(11.1)	1,099(12.9)	1,447(13.0)	1,701(12.7)	2,172(13.6)
	30~54세	1,566(61.7)	5,447(64.1)	6,974(62.5)	8,299(61.7)	9,306(58.2)
	55세 이상	690(27.2)	1,957(23.0)	2,729(24.5)	3,443(25.6)	4,512(28.2)
일반/ 취약계층	취약계층	1,403(55.3)	4,896(57.6)	6,467(58.0)	8,227(61.2)	9,488(59.3)
	일반	1,136(44.7)	3,610(42.4)	4,683(42.0)	5,216(38.8)	6,502(40.7)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 iv) 사회적경제는 경쟁시장을 근간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통상적인 소비시장과 더불어 '윤리적 소비자 중심의 소비시장'이 형성
 - 사회적경제의 일반 유통시장은 합리적 소비를 근간으로 하는 일반시장과는 달리 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윤리적 소비가 중심
 - 최근 국내 윤리적 소비 시장은 사회적 관심 증대 및 정책적 지원 확대로 인해 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까진 규모가 미미한 상황
 - 따라서, 적극적인 윤리적 소비시장의 창출을 위해 다양화된 고객들의 기대 수준 및 만족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각화된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

2)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고, 그 이후 정책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
 - 외환위기 이후 발생한 대규모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 이후, 2007년 들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계기로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으로 정책영역에 통합되기 시작
- '08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협동조합

까지 정책영역에 통합되었고, 사회적경제 전반이 시장경제의 보완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농협, 수협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
- 지역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짐

-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함

<표 5>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구분	유형	개념	관련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서비스 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등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쉼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등)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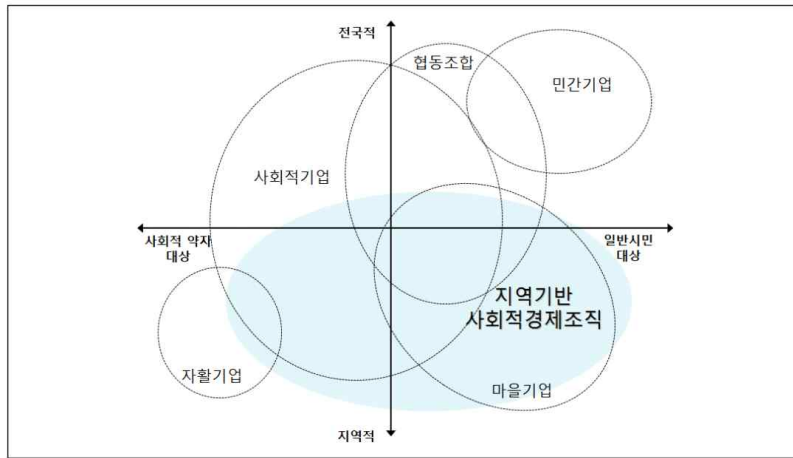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
- '협동조합'은 협동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 향상 및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하며,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

- 이외,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과 자활자의 재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존재

3) 사회적경제와 지역사회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 범위는 전국-지역, 일반시민 대상-사회적 약자 대상이 나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음(임상연, 2015)
 - 이중,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주민 및 지역공동체를 사업주체 및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공간적 범위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 사회적경제는 지역기반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커뮤니티 비즈니스같은 지역 사회 문제해결과 필요 충족의 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발전한 조직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임(전지훈·강현철, 2015)



<그림 2> 지역기반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출처: 임상연외(2015), 18페이지

- 기 구축된 관련 법·제도 그리고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

적경제조직은 공간 범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전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

- 그러나 최근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기반한 전략 마련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창출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



<그림 3> 지역사회와 사회적기업의 관계
출처: 홍현미라(2008), 143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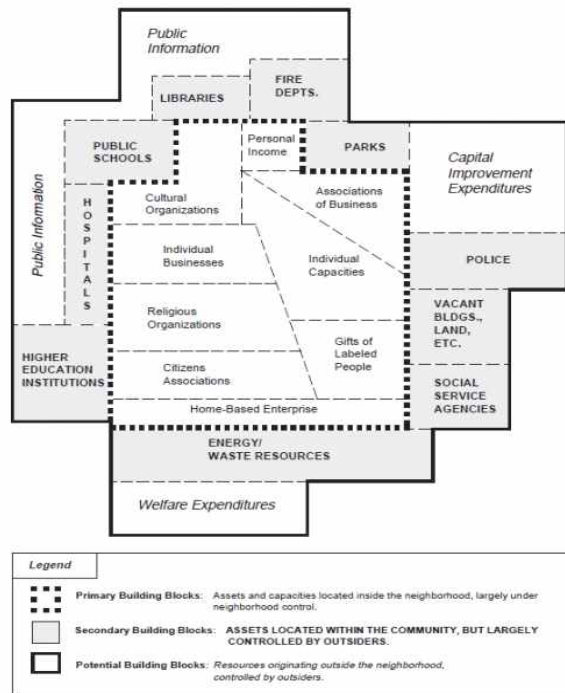
- 본질적으로 전지훈·강현철(2015)는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면 사회적가치에 대한 의미를 주목할 필요 있음.
 - 사회적가치는 개별적 존재들의 가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규범을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임(신명호, 2009)
 - 사회적경제는 협력과 연대, 공공선의 원리로 작동하면서 경제적 가치보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적임(정진화, 2012).
 - 따라서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의 기여와 발전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인 의미로 이해
- 지역사회기반 전략으로 최근 주목을 받는 것은 자산기반지역공동체개발(ABCD:asset-based community development)임.
 - 이는 지역의 문제(필요)를 외부자원(정부 및 시장)을 연계한 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우선 지역의 역량과 활용자산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전략임(한상희·김경희, 2013, 송두범외, 2014)
 - 자산기반지역공동체개발에서의 지역자산은 '지역사회에 있는 개인, 조직,

지역사회기반 사회적경제 사례분석 ◀

기관의 기술과 역량'으로, 개인의 재능에서 자연자원에 이르는 물리적인 자산을 모두 포함함

●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한상희·김경희, 2013)

- ①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알게 되고, 기업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얻기 쉬움
- ②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수월해짐
- ③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의 직원간의 신뢰와 상호이해 수준이 높아짐



<그림 4> 지역자산을 지도화 한 예

출처: McKnight & Kretzmann(1996), 송두범외(2014), 17페이지에서 재인용

1.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

● 2015년 현재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520개이며, 이중 협동조합 288개 (55.4%), (예비)사회적기업 136개(26.2%), 마을기업 96개(18.5%)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현황('15. 12. 31 기준)

(단위: 개, %)

구분	합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계	인증	예비		
개수	520	136	66	70	96	288
비중	100.0	26.2	12.7	13.5	18.5	55.4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91개), 아산시(78개)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입지해 있으며, 이외 지역은 25개~40개 규모로 비교적 고르게 형성되어 있음

- 천안시의 경우, 총 91개의 사회적기업 중 협동조합(57개), (예비)사회적기업(32개)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가운데,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마을 기업이 비교적 발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충청남도 시군별 사회적경제 현황

	합계	(예비)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 조합
		계	인증	예비		
계	520	136	66	70	96	288
천안	91	32	16	16	2	57
공주	32	8	5	3	8	16
보령	26	5	3	2	8	13
아산	78	27	9	18	9	42
서산	36	8	5	3	7	21
논산	40	9	6	3	8	23
계룡	7	1	1	0	2	4
당진	25	7	3	4	5	13
금산	35	7	3	4	5	23
부여	14	3	1	2	5	6
서천	37	13	5	8	7	17
청양	15	3	1	2	8	4
홍성	30	5	4	1	8	17
예산	29	3	2	1	6	20
태안	25	5	2	3	8	12

□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현황

-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은 2013년 133개, 2014년 142개, 2015년 136개로 큰 폭의 변동은 없으나, 지역별 증감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천안시, 아산시의 경우 2013년 각각 29개, 17개에서 2015년 32개, 27개로 증가세에 있음
 - 반면, 서천군, 예산군의 경우 2013년 각각 16개, 8개에서 2015년 12개, 3개로 감소세에 있음

<표 8> 충청남도 연도별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소)

시군	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2013	133	29	7	4	17	9	9	4	3	8	4	16	4	7	8	4
2014	142	35	8	6	26	8	10	6	2	7	4	13	2	5	4	6
2015	136	32	9	6	27	8	9	1	6	6	4	12	2	5	3	6

- (예비)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3년 5억 9,848만원에서 2015년 5억 2,353만원으로 감소세에 있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논산시, 서산시, 천안시 등은 평균 매출액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논산시의 경우 2013년 20억 734만 원에서 2015년 8억 9,917만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 서산시의 경우에도 2013년 12억 5,424만 원에서 2015년 3억 7,106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
- 반면, 청양군, 예산군, 당진시 등의 평균 매출액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 청양군의 경우, 2013년 10억 612만 원에서 2015년 19억 3,575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표 9>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매출액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평균 매출액		
	2013	2014	2015
계	598,487	582,043	523,534
천안	726,739	562,300	318,121
공주	261,415	486,116	447,339
보령	287,299	233,671	193,224
아산	239,393	194,925	200,808
서산	1,254,244	370,184	371,065
논산	2,073,491	2,076,531	899,917
계룡	122,392	199,930	142,187
당진	196,058	360,166	529,839
금산	112,018	344,099	360,000
부여	925,387	538,785	375,000
서천	212,830	263,612	156,432
청양	1,061,237	975,792	1,935,753
홍성	633,712	758,276	722,500
예산	233,898	835,016	649,377
태안	637,199	531,242	551,448

- 충청남도 (예비)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348명, 2014년 1,466명, 2015년 1,204명으로 소폭의 증감이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 등은 일자리 수의 감소세가 나타나는 반면,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는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천안시의 경우 2013년 525명에서 2015년 338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아산시는 2013년 83명에서 2015년 13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0>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 명)

시군	일자리수		
	2013	2014	2015
계	1,348	1,466	1,204
천안	525	534	338
공주	51	83	63
보령	57	51	63
아산	83	141	138
서산	125	130	174
논산	85	130	51
계룡	34	21	7
당진	15	50	101
금산	48	21	6
부여	46	46	41
서천	116	104	97
청양	33	24	21
홍성	70	66	32
예산	34	27	24
태안	26	38	48

- (예비)사회적기업의 공공구매 참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현재 약 159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의 5.9% 수준
 - 충청남도의 경우 3억 4,489만 원으로 전체 공공구매 예산 대비 0.58%에 불과한 반면,
 - 시군은 총 212억 2,831만 원으로 전체 공공구매 예산 대비 6.9% 수준

- 시 단위의 공공구매 비율은 아산시 14.2%, 천안시 9.9%, 공주시 9.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서산시는 2%에 불과
- 군 단위의 공공구매 비율에 있어서도 서천군 12.5%, 홍성군 11.8%, 금산군 9.9%로 높게 나타나, 예산군 1.4%, 태안군 1.3%, 부여군 1.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표 11> 충청남도 (예비)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참여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시군명	*1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서비스·용역 위탁 총액				구매총액	구매비율	순위
		예비기업 (①)	인증기업 (②)	제품 구매총액 (①+②)	A=①+(②*1.5)			
	총 계	4,844,465	11,152,496	15,996,961	21,573,209	364,604,355	5.917	
	충남도	146,297	132,397	278,694	344,892.5	59,216,827	0.583	
	시군소계	4,698,168	11,020,099	15,715,267	21,228,316.5	305,387,528	6.952	
시부	천안시	470,004	3,859,370	4,329,374	6,259,059	63,229,019	9.9	2
	공주시	696,755	540,437	1,239,711	1,511,189	16,514,921	9.151	3
	보령시	149,925	289,332	439,257	583,923	12,573,195	4.645	6
	아산시	281,956	1,499,056	1,781,012	2,530,540	17,819,617	14.201	1
	서산시	172,003	294,062	466,065	613,096	29,926,778	2.049	7
	논산시	399,546	397,339	796,885	995,554.5	17,608,147	5.654	5
	당진시	145,575	1,111,530	1,257,105	1,812,870	26,885,074	6.744	4
	계룡시	28,000	108,000	136,000	190,000	4,815,058	3.946	5
	금산군	43,293	705,225	748,518	1,101,130.5	11,114,730	9.907	3
군부	부여군	172,961	40,054	213,015	233,042	18,441,132	1.264	8
	서천군	796,629	481,019	1,277,648	1,518,157.5	12,075,516	12.573	1
	청양군	809,283	123,596	932,879	994,677	11,593,043	8.58	4
	홍성군	219,970	1,364,386	1,584,356	2,266,549	19,182,664	11.816	2
	예산군	86,848	114,474	201,322	258,559	17,678,623	1.463	6
	태안군	225,420	89,700	315,120	359,970	25,930,011	1.389	7

□ 마을기업 운영 현황

- 2015년 현재 마을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6억 9,055만 원으로 2013년 9억 484만 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홍성군 등에서 평균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아산시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2013년 670만 원에서 2015년 1억 1,676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 반면, 보령군, 청양군, 태안군 등은 2013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태안군의 경우 평균 매출액이 2013년 9,370만원에서 2015년 5,8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충청남도 연도별 마을기업 평균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시군	매출액		
	2013	2014	2015
계	904,841	1,267,724	1,690,550
천안	0	0	0
공주	49,500	125,000	79,000
보령	80,280	60,279	57,497
아산	6,700	77,600	116,757
서산	0	0	20,000
논산	134,000	250,000	252,000
계룡	0	0	12,000
당진	251,000	318,000	588,430
금산	24,500	52,000	125,000
부여	20,481	3,000	33,000
서천	6,000	94,500	31,036
청양	90,000	78,000	66,000
홍성	69,000	133,700	194,830
예산	79,680	62,000	57,000
태안	93,700	13,645	58,000

- 2015년 현재 마을기업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총 422명의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2013년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살펴보면, 보령군,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령군의 경우 일자리 창출규모가 2013년 25명에서 2015년 39명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에서는 2013년 대비 일자리 창출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태안군의 경우 2013년 155명에서 2015년 92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13> 충청남도 연도별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

(단위: 천원)

시군	일자리수		
	2013	2014	2015
계	445	548	422
천안	0	0	0
공주	12	9	8
보령	25	31	39
아산	36	24	24
서산	0	4	6
논산	30	31	35
계룡	0	0	2
당진	72	160	69
금산	11	16	18
부여	19	31	16
서천	8	18	19
청양	35	30	25
홍성	34	46	46
예산	8	18	23
태안	155	130	92

2. 충청남도의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현황 분석

1) 분석 방법

- 사회적경제조직은 창업 배경 및 목적에 따라 (지역)사회혁신형, 자활형, 정책사업형, 사회공헌형으로 구분이 가능
 - (지역)사회혁신형 기업 : 설립 목적 자체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 지향의 의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가진 경우
 - 자활형 기업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에 따라 자활사업단이 자립·독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된 경우
 - 정책사업형 기업 : 정부의 정책지원사업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된 경우
 - 사회공헌형 기업 : 일반기업이 사회적가치와 목적을 키워 사회적기업의 인 증여건을 갖춰 사회적기업이 된 경우
-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은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창업한 경우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함
 -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따른 공간 및 서비스, 소통수단의 제공,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친환경 유기농업의 유통과 확산을 위한 로컬푸드 등이 있음
 -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의 구성원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영리성보다는 사회적가치지향성이 강하고, 운영 원리도 영리창출보다는 가치실현의 목적성이 강함
 - 또한, 기업들은 다양한 사회활동 영역을 공유하고 시민단체의 지원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구성원도 사회운동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유형구분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내 52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분류하여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을 파악하고자 함
 - 520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분류를 위해 창업 목적,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특성을 정성적으로 분석함
 -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경제기업 분석을 위해서는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520개 기업에 대한 심층 조사가 필요함

<표 14> 사회적경제 창업배경 및 목적에 따른 유형 구분

유형분류	유형 세분류	기업특징
(지역)사회혁신형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카페, 지역사회문제
	일자리	자립자활 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지원과 유통
	교육·육아	교육프로그램 개발, 강사의 육성 및 관리, 육아서비스
	소셜벤처	적정기술, 사회혁신 기술, 아이디어 벤처, 생태·대안에너지 기술
	문화·예술·체험	지역 문화, 전통예술, 체험프로그램
	장애	장애인보호사업장 등
자활형	청소	자활기업 청소업체
	집수리	자활기업 집수리업체
	돌봄	자활기업 돌봄서비스업체
	기타	자활 복합 등
정책사업형	농촌정책	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 6차산업 등 농촌·농업정책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교육부 지원 대학주도 방과후 사업
사회공헌형	농업	농축산물 등 생산/단순가공/유통판매
	제조	식품가공, 물품생산
	서비스	청소, 강사파견 등
	문화예술	공연, 공예, 설치, 기획 등
	기타	자원재생 등

2)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경제 현황

- 해당 통계는 총 520개의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을 중심으로 창업 목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유형 분류한 결과.
 - 본 연구에서는 사전적 현황 분석 차원에서 해당 기업의 창업 배경 및 사업 내용을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한 후 분류함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역사회혁신형 기업 313개(60.1%), 사회공헌형 기업 163개(31.3%)로 전체 기업의 91.4%를 차지
 - 이외 정책사업형 기업 27개, 자활형 기업 17개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활형 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으로 인증 받은 기업만 포함된 만큼 실제로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표 15> 유형별 충남 사회적경제 현황(2015년 기준)

유형 분류	유형 세분류	기업수
사회공헌형	농업	45
	문화예술	23
	서비스	54
	제조	29
	기타	12
	소계	163
자활형	돌봄	6
	집수리	8
	청소	1
	기타	2
	소계	17
정책사업형	농촌정책	25
	대학주도 방과후	2
	소계	27
지역사회혁신형	교육·육아	41
	로컬푸드	115
	문화·예술·체험	26
	소셜벤처	60
	일자리	17
	장애	8
	지역공동체	46
	소계	313
총합계		520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을 유형별/기업형태별로 구분할 경우, 지역사회혁신형 기업은 협동조합이 175개(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은 각각 70개, 68개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

<표 16> 유형별 충남 사회적경제 현황(2015년 기준)

유형 분류	기업형태별	기업수
사회공헌형	마을기업	12
	사회적기업	47
	협동조합	104
	소계	163
자활형	사회적기업	13
	협동조합	4
	소계	17
정책사업형	마을기업	15
	사회적기업	8
	협동조합	4
	소계	27
지역사회혁신형	마을기업	70
	사회적기업	68
	협동조합	175
	소계	313
총합계		520

- 지역사회혁신형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로컬푸드 115개(36.7%), 소셜벤처 59개(18.8%), 교육·육아 41개(13.1%)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로컬푸드 기업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산제터먹이 협동조합, 공세리마을 협동조합,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등이 있음
 - 소셜벤처형 기업은 적정기술을 활용한 생태·환경 기술영역과 재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창업한 기업으로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 두레배움터, 자이언트 등이 있음
 - 교육·육아 기업의 경우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강사 양성 등 교육 분야와 육아돌봄서비스 기업으로, 아산YMCA아가야, 한국상담교육 협동조합, 라온교육협동조합,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음

<표 17> 유형별 충남 사회적경제 현황(201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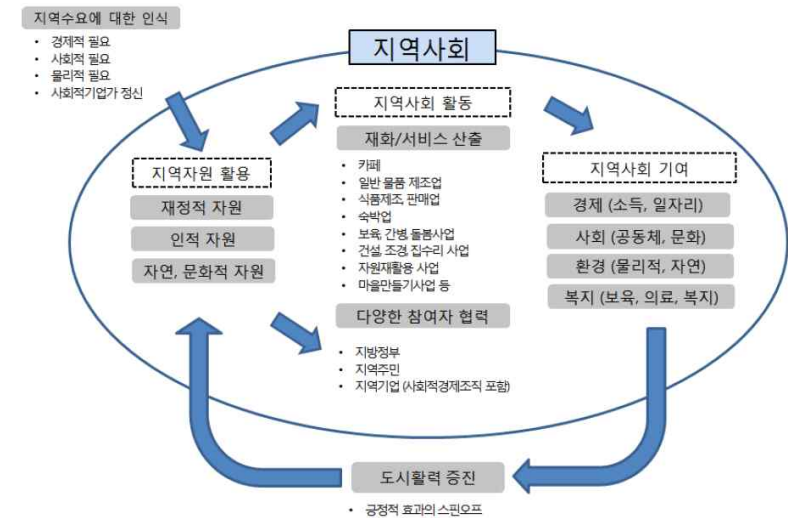
구분	기업수	주요 기업
교육·육아	41	사단법인 더울림, 천안FC 사회적협동조합, (주)해피캔버스, (사)한국유소년 스포츠지도자협회, (사)충남교육연구소, 아산YMCA아가야, 한국상담교육 협동조합, 라온교육협동조합, 아름누리아카데미 사회적협동조합, 아산나누어DREAM 협동조합, (사)글로벌드림아카데미, (주)니스, 글과나무, 서천 숲, 좋은엄마 품앗이학교, 지역학교 포럼, 갈두천 협동조합, 우문현담협동조합 등
로컬푸드	115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공세리마을 협동조합, 아산로컬푸드 협동조합, 협동조합고랑이랑, 아산배방로컬푸드협동조합, 하늘땅영농조합법인, 궁골식품 영농조합법인,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주)지랑, 흥성한우클러스터 사업단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충남친환경농업유통 지원사업단, (주)공생공소 농업회사법인, 공주친환경 밤 협동조합 등
문화·예술·체험	26	우리역사문화 협동조합, (사)해미읍성역사보존회, 광덕농촌문화마을 영농조합법인, 산성자연애 영농조합법인, 좌부리마을 협동조합, 문화협력 마을공동체, 화곡리 마을공동체, 띠울마을영농조합, 용봉산돌바위 영농조합법인, 예산 흙사랑 귀농인모임, 협동조합 느린손, 대야도영농조합법인 태안반도투어협동조합 등
소셜벤처	60	(주)리움, (주)씨앤피, (주)자이엔트, (주)주얼테크, 충남공예협동조합, (사)한국자연미술가협회자연의소리사업단, 아산풍성한 영농조합법인, 작은손 적정기술 협동조합, 송악에너지공방 협동조합, (주)좋은마음, (사)한옥체협업협회, (주)성림에코산업, (사)한산모시조합, 올리고마을 영농조합, 꿈지락마을 공작소, 한국파워블로거협동조합, 폐자원재활용협동조합, 남산중앙시장상인,
일자리	17	(주)나눔커뮤니케이션, 행복나눔협동조합, (주)원드케어시스템, 소금꽃협동조합, 다울사회적협동조합, (주)열린문디자인, 수피아 사회적협동조합, 어송에코빌리지, 논산다문화협동조합
장애	8	(사)한빛희 천안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충남장애예방교육센터, (사)한마음장애인복지회 화장지사업단, (주)맛있는국수집, (사)삼취복지재단 두레일터, (주)희망제지, (사)한국산재장애인협회서천지회 어망사업단
지역공동체	46	(주)북카페 산새, 협동조합 우리동네, (재)명학장학회, (주)꿈해비타트 풀담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너나드리협동조합, 서천생선구이가게 협동조합, (주)서해 나눔, 현대시장상인회, (주)아산 사랑회, 공세리마을 협동조합, 협동조합 이랑이랑, 갈산2리영농 조합법인 공사랑마을기업, 팔거리커피마을, 별에별꽃 협동조합 등
소계	313	

3. 사례분석

● 사례분석은 임상연 외(2015)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

-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흐름을 파악하되, ① 지역자원의 활용, ② 지역사회 활동, 즉 사회적경제조직의 재화·서비스 및 참여자협력, ③ 지역사회 기여를 중점적으로 분석

[그림5]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 분석틀



출처: 임상연외(2015), 24페이지

● 사례분석은 로컬푸드(당진시의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교육·육아(공주시의 충남교육연구소), 지역공동체(서천군의 바른생산자협동조합)를 선정하였으며, 각 유형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조직임

1)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 개요

- [시작]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이하, 백석올미)은 농림식품부에서 3개 마을(백석리, 양유리, 공소1.2리) 「검은들 권역 농촌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2010년에 마을소득사업의 요청이 있었음. 당시 백석리 부녀회장이었던 현재 백석올미대표는 요청을 받아 들어 소득사업(한과제조) 추진하게 됨
- [지역특산물] 이는 마을의 10만 그루의 매실나무를 활용한 것으로, 농한기에 간간히 수작업으로 만들어 팔았는데 반응이 좋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
- [창업과정] 백석올미의 탄생은 순탄치 않았음. 한과공장 및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 주민간의 갈등이 있었음. 이러한 주민갈등을 꾸준한 마을회의와 기공체조, 마을사랑운동 등 관계회복의 노력을 통해 해결, 주민출자 및 동의를 이끌어냄.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창업과정에서 도움을 받음
- [기술교육] 기존의 수제한과로는 맛과 질의 차이가 나 상품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판단. 한과전문교육기관에서 6개월간 교육받음
- [홍보] 2012년 12월 우수마을기업으로 지정은 성장의 기폭제역할을 함. 각종 TV 프로그램과 신문에 보도 되면서 마을기업과 매실한과가 톡톡히 홍보

● 지역자원 활용

- [지역특산물 활용] 마을의 10만 그루 매실나무를 활용
- [부녀회와 출자] 2010년 백석올미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모집. 부녀회원들에게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공동 명의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동참을 권하는 편지글을 보냄. 이러한 노력으로 38명이 영농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하였고 1인당 200만원씩(200구좌) 출자하여 공동자금을 마련함.
- [사회적경제정책 활용] 사회적경제지원제도의 하나인 마을기업 지원금은 초기 사업 기반을 잡는데 도움이 됨. 제품 박스나 스티커 제작에서부터 자체 블로그 구축, 위생시설(HACCP) 보완 등을 지원금을 통해 해결함. 또한 재무·회계설무, 마케팅, 사무전산화 등의 각종 교육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혹은 유관기관을 통해서 받음

● 지역사회 활동

- [제품] 백석올미는 대표상품인 매실한과를 비롯, 매실쥬아치, 매실액기스 등 매실상품임

- [서비스] 대표상품인 매실한과의 제조체험 등 먹거리체험과, 공예체험 및 계절별 농촌자연체험(예, 옥수수따기, 밤따기 등)

● 지역사회 기여

- [고령자 일자리제공] 부녀회를 중심으로 고령자에게 일자리(제조 및 판매)를 제공하여 자립과 자존감을 되찾게 하였음
- [마을복지에 대한 고민] 마을내 독거노인 반찬 배달 및 청소(월 2회), 농한기 점심제공, 경로잔치 등을 시행하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마을에 없는 목욕시설을 만들어 마을주민의 복지향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표 18>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분석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기여
·권역농촌개발사업 ·10만그루의 매실나무 ·마을고령자	·매실한과 개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마을주민의 출자	·고령자 일자리제공 (용돈주는 할머니) ·지역복지에 관심 (향후 마을목욕시설 추진)

2) 충남교육연구소

● 개요

- [시작] 2000년 이진철교사와 현 사무국장인 조성희 국장 부부가 공주로 귀촌, 지역교사들과 함께 학교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시작됨. 2000년 9월 교사 81명, 교수 34명, 시민 13명 등 총 128명이 “삶의 교육, 상생의 교육”을 목표로 충남교육연구소를 설립함. 연구소는 폐교가 된 우성초등학교 봉현분교를 사용
- [사업방향] 회원의 다수가 지역교사이며, 교사들의 욕구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었음. 그러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역량이 필요하나 부족하였음. 이를 위해서 공주대학교 사범대학특화사업단과 연계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역량을 높였음. 공동연구는 현장성과 지역성이 높았고, 특히 2005년 이후 독자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해짐. 이를 통해 내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 위탁등을 수행하게 되었음.

- [사업영역] 충남교육연구소의 사업은 4가지 영역임. 학교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 학술 및 정책 연구사업, 연수 및 지원사업, 정보화 및 출판사업

● 지역자원 활용

- [지역교사]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가진 지역교사 및 교수와의 연계. 공동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화
- [지역기관]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등과 공동연구수행, 대전지방노동청 등과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진행을 진행
- [지역마을축제] 우성면 봉현리에 위치한 충남교육연구소는 초기 지역아동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복지서비스(봉현서당)를 제공하였음. 이것이 확대되어 공주 봉현리, 안양리, 청양 남천리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함께 은행나무축제를 개최하게 됨

● 지역사회 활동

- [연구사업] ①농촌교육: 농촌현실에 맞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② 학교재구조화: 농촌 소규모학교의 재구조화 및 발전계획 등 학교 컨설팅 사업, ③ 전통문화예술교육: 농촌문화에 바탕을 둔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문화학교 사업] 학교와 지역을 잇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농어촌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의 장 제공. 느티나무 주말학교, 느티나무 계절학교, 찾아가는 문화교실, 농촌문화체험활동, 학교 연계방과후 및 특기적성교실 강사과견 등

● 지역사회 기여

- [지역공동체사업]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등 3개마을과 함께, 다양한 사업 진행
- [마을현안사업지원] 주민교육에서 출발한 사업은 3개리 연합 마을축제인 은행나무 축제 및 봉현리 역사문화마을만들기 등 마을 현안사업 지원, 남천리 산촌체험마을 사무인력 지원, 마을축제 연수지원 등
- [마을주민 복지지원] 마을소외계층 청소년 장학생만들기 및 복지지원, 조손가정 난방비 지원 및 기타 물품지원 등
- [폐교시설 활용 마을공동체 지원] 주민회의 공간지원 및 체육활동지원, 주민동아리 활동지원(풍물동아리, 전통문화동아리, 연극동아리), 마을다큐제작, 달밤영화관 운영 등

<표 19>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분석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기여
· 지역교육자 · 마을주민 · 지역공공기관	· 연구사업(농촌교육 등) · 연수사업(네트워크) · 청소년문화학교	· 지역공동체사업 지원 · 마을주민 복지지원

3) 바른생산자협동조합

● 개요

- [현황] 서천군 지역상권 회복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된 사업자협동조합임. 전문식자재 유통을 목적으로 상인(9), 농업인(5), 제조업자(5) 등 2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
- [시작]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이하, 바른생산자)의 시작은 2009년 ‘얼굴있는 먹거리(예비사회적기업)’의 실패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서천군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얼굴있는 먹거리’를 조직,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직매장사업을 접게 됨
- [실패이유] ①서천군민들의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이 낮음과, ② 판로확보의 어려움이었음.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지방소도시의 로컬푸드는 대형 소비처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됨
-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소비처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던 중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노인요양병원 등이 함께 입지한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로부터 ‘식자재 납품주문’ 요청이 들어옴.
- [협동조합 결성] 이를 계기로 상인, 농업인, 제조업관계자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2013년 3월 1일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식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함.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계기는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의 납품요청과 같은 지역사회의 지원과 협동조합의 자구노력. 현재 로컬푸드매장 및 유흥지 경작 등 새로운 지역사회 기여를 추진하고 있음.

● 지역자원 활용

- [조합원] 서천지역 상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다양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이룸

구분	인원	취급물품
상인조합원	9	일반 공산품, 수산물, 육류, 쌀
농업인조합원	5	야채, 과일, 친환경 작목반 등
제조업조합원	2	김치, 두부
후원인조합원	3	
직원조합원	1	

- [지역물품&로컬푸드]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등에 납품하는 식자재는 월 5천만원 규모로 시작하였음. 가능한 납품식자재는 지역식자재를 우선하나, 아직 모든 식자재를 지역(로컬)의 것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초창기 2~3개월은 물량, 물품의 질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꾸준한 물량을 공급하고 있음

● 지역사회 활동

- [사업확대]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납품실적을 통해 서천군의 지역의 요양원, 병원, 식당, 보건소, 소방서, 장례식장 등 새로운 판로개척함.
- [로컬푸드 매장] 2016년 6월 서천군 아파트단지앞 매장이오픈하였음. 식자재 납품거점 및 소농의 로컬푸드 판매가 가능한 매장으로, 최초 로컬푸드 매장의 실패이후 새롭게 매장을 만들어내었음.
- [매출상승] 매년 큰 폭의 매출상승(5억(2013)-7억7천(2014)-13억(2015))을 기록하고 있음.

● 지역사회 기여

- [지역상권 회복]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음. 외지의 기업이 했던 납품들을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이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납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기관에 납품함으로써 그 성과를 내고 있음
- [이익공유] 매년 서천군노인복지관과 어메니티복지마을 등지에 2,500만원 기부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지역사회기여 원칙이행
- [일자리창출] 2013년 설립시, 상근인력 1인으로 시작하였으나, 2016년 3월 말 현재 상근인력 3명으로 확대

- [로컬푸드 확대] 냉동차량운행을 통해 소농이 생산한 농산물(로컬푸드)를 전량구입하여 판매대행. 현재 1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예정
- [부가적인 이익] 조합원간의 거래처 공유와 상호 판매협력, 잉여 농산물 대행판매 등을 통해 실적으로 분류되지 않는 부가적 이익도 창출

<표 20>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기반 활동분석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활동	지역사회 기여
·지역 소상공인 ·로컬푸드운동 ·지자체 사회적경제 관심	·지역상권을 통한 식자재 납품 ·로컬푸드매장 ·지역대소비처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지역청년 고용 ·로컬푸드 구입 ·매년 2,500만원 지역환원 ·휴경논경작

1. 제언의 방향(연결: NEED가 ASSET으로 전환케 하는 동력)

- 위의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사회는 니즈(need)의 대상이 지역자원(asset)으로 전환가능성을 확인
 - 이는 지역사회문제, 그리고 그 대상자를 언제나 지원대상으로만 한정할 것인가에 큰 의문을 던지게 함

백석올미	충남교육연구소	바른생산자	이키이키이와미
·마을고령자 → 한과제조사	·지역교육자 → 농촌특화교육	·지역 소상공인 → 납품사업자	·지역주민(중년주부) → 복지서비스 제공자

- 이러한 전환은 자원간의 연결(connect)을 통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그 연결고리는 사회적경제조직이었음

백석올미	충남교육연구소	바른생산자	이키이키이와미
·마을고령자 + 농촌개발사업 + 마을기업	·지역교육자 + 지역대학 +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소상공인 + 지역공공기관 + 협동조합	·지역주민(중년주부) + 돌봄강좌 + 협동조직

- 연결(connect)의 중요성은 다른 분야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특히 사회혁신 분야에서 연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혁신은 기술혁신과 차별되는 특징 중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것보다 기존요소들을 결합한 새로운 결합과 혼합의 결과임. 그러므로 사회혁신에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금, 권력을 이어주는 연결자connectors의 역할은 중요(제프멀건, 2011)

- 경제학 및 경영학분야(조지프 스펀터, 말콤 그래드웰 등)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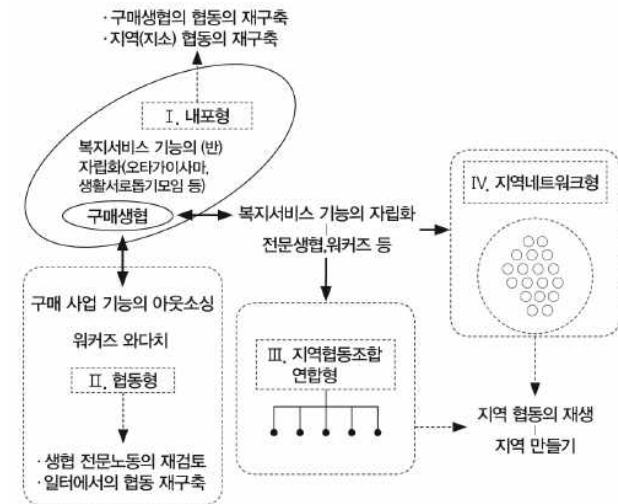
- 상기 분석된 사례들도 기존요소들의 연결과 혼합을 통해 새로운 결과들을 제시하였음. 이러한 사례가 확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 지역사회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연결이 필요할까?

2. 정책의 제언

- 연결자를 활용하라: 생협·자원봉사·지역순환경제만들기

- 연결자로서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 가능성
 - 오카무라 노부히데(2015)는 일본의 생활협동조합(또는 구매생협)을 매개로 다양하게 출현한 사회적경제조직 사례를 검토한 후, 지역사회는 니즈를 대응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성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그림 6> 구매생협과 새로운 협동조합의 관련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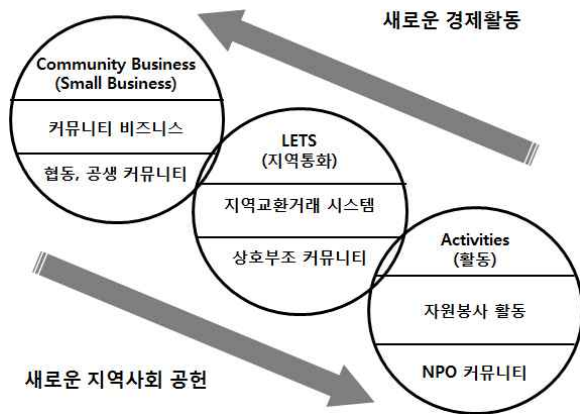
출처: 오카무라 노부히데(2015), 222페이지

- 생협 내부로부터의 새로운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성(내포형)뿐만 아니라, 생협과 사회적경제조직간의 연결(협동형), 지역협동조합간 연합형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와 혁신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연결자로서의 자원봉사의 역할 가능성

-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제창자인 호소우치 노부타카(2001)은 상호부조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3가지, 즉 자원봉사-지역통화-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 특히 자원봉사활동은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첫단계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대응하는 단계임. 이 단계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머무를 수도 있고, 또는 시장성이 있어 비즈니스(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되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림 7]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LETS와 자원봉사의 관계



출처: 호소우치 노부타카(2007), 49페이지

● 연결자로서의 지역순환경제만들기의 가능성

- 우치하시 가쓰토는 지역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FEC자급권

을 강조. FEC란 Food, Energy, Care의 앞글자만 딴 조어로, 먹거리(Food), 자원 및 환경(Energy), 돌봄(Care)의 지역자급을 실현하자는 것임

- FEC자급권은 현재 일본 생활클럽(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위커즈 코프(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등 일본의 주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결의하고 채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FEC자급권과 같이 지역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임.

- 연결자 활동을 위한 정책적 제안

●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지역경제순환의 정책적 목표 수립 필요

- 지역공동체와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 실제 유사한 활동과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기반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음
- 하지만 현재는 개별적인 행정부서와 지원기관으로 인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영역을 분리하여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현실임.
- 지역사회기반의 활동은 사회적경제의 모든 조직이 지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해 지역경제순환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원정책의 고려와 설계가 필요함.
- 구체적으로 지역사회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실질적인 유형과 모델의 도출, 그리고 관련 지표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와 같은 정책확산을 위한 중남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됨

● 지역사회기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성과평가의 적극적 도입

-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사회적가치 활동에 대한 성과는 주요한 평가의 부분이며 이에 대해 지역사회기여와 지역사회기반 활동의 적극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함
- 지역사회의 수요와 자원에 대한 연결의 중요한 매개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결자로서 활동에 대한 사회적가치로서의 평가 시스템 확립이 필요함

- 이러한 평가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홍현미라(2008)의 주장처럼,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시각에서 공동의 사업기획과 진행, 의사소통의 노력, 이익금의 순환행위 등의 행위에 대한 지표의 개발과 평가체계의 개발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 기반한 연대조직의 설립 및 모델개발 제안

- 정문기 외(2015)는 퀘벡의 사회적경제발전의 주요 원인으로 연대협동조합으로 인한 지역개발모델에 주목하고 있음. 연대협동조합은 지역이 처한 문제와 해법을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활동하는 사회적 역량 배양의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하였음
- 따라서 지역사회발전을 목표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성한 사회적경제의 지역사회연대조직의 모델개발을 제시함. 앞에서 제시한 충남의 사례들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발견하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성공사례들의 지역차원에서 정착과 보편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수요와 문제점, 자원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 문제의 해결과 수요충족을 위한 연대조직(가칭 지역연대조직)의 개발과 제도적 확립을 필요로 함
- 이러한 연대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처한 상황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유형과 이에 따른 모델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충청남도의 각 지역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연대조직의 설립과 활동을 유인하고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함

◆ 참고 자료 ◆

- 송두범 외, 2012, 충남사회적경제5개년계획, 충남연구원
 이수철, 2014, 충남리포트 113호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연구원
 최은영 외, 2015, 충남리포트 153호 '충청남도 행정통·리 마을의 최근(2005~2010년) 변화와 시사점', 충남연구원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011, 충남지역 경제의 특징과 발전방향
 송위진 외, 2009,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기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위진 외, 201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 사용자 참여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두범 외, 2013, 충남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실태조사,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두범·박춘섭, 2014, 충남경제의 '일등공신', 협동조합, 지역과 발전 15호
 제프멀건, 2011, 사회혁신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어떻게 추진하는가, 시대의 창
 말콤그래드웰, 2004, 티핑포인트, 21세기북스
 피터 싱어·짐 메이슨, 2008, 죽음의 밥상, 산책자
 충청남도, 2015년 충남사회지표 주요결과
 충청남도·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2014, 충남(예비)사회적기업 경영진단을 위한 실태조사
 김정섭·김경덕·임지은, 2015,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상연외, 2015,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정건화, 2012, 민주주의, 지역, 사회적경제, 「동향과 전망」. 86호.
 전지훈·강현철, 2015, 지역기반 사회적경제를 위한 이론적 기반의 탐색적 연구: 공동체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9(1).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호
 정문기·전지훈·최문형, 2015,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연구: 퀘벡 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24(1).
 호소우치 노부타카, 2007,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아르케.
 오카무라 노부히데, 2015, 생활협동조합과 커뮤니티, 충남발전연구원.
 Defourney, J., Nyssens, M., 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ed), Nyssens, M.,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Fontan, J. M., Shargge, E., 2000, Tendencies, Tensions and Visions in the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International Debates and Perspectives*, (2000).
 Lukkariinen, M., 2005, Community Developm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Social Economy,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40(4).
 충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국가통계포털(KOSIS)(kosis.kr)